

광주FC 'K리그1 복귀' 한 걸음 남았다

안양과의 K리그2 39라운드
이순민·산드로 연속골 2-1 승리
23승 9무 4패 ... 승점 78
승격 위한 매직넘버 '1'

광주FC가 K리그1 복귀까지 한 걸음 남겨놨다. 광주가 지난 14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 안양과의 K리그2 39라운드 경기에서 이순민과 산드로의 연속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사실상 결승전이었던 2위 안양(17승 11무 6패·승점 62)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광주는 23승 9무 4패, 승점 78을 만들었다. 광주보다 두 경기를 덜 치른 안양이 남은 6경기에서 모두 승리해도, 광주는 '승점 3'을 더하면 우승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승리로 광주는 느긋하게 안양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우승 삼패인'을 터트릴 수도 있다. 광주가 40라운드 휴식팀이 되면서 26일 안산그리너스와의 홈경기까지 쉬어간다. 반면 안양은 17일 충남아산전에 이어 21일 대전전까지 소화해야 한다. 안양이 패하거나 두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면 광주의 우승이 확정된다. 우승 9부 능선을 넘는 광주는 기세를 이어 K리그2 최고 기록에도 도전한다. 현재 K리그2의 최다승·최다승점은 2017년 경남 FC가 기록한 24승과 79점. 안양전 승리로 23승을 채운 광주가 남은 4경기에서 1승을 더하면 경남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최초로 승점 80고지를 밟게 된다. 포문을 연 것은 이순민이었다. 전반 31분 이상기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띄운 공

이 수비 맞고 뒤로 흘렀다. 페널티 아크 뒤에 있던 이순민이 공을 잡아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선제골을 장식했다. 후반 3분에는 산드로가 골망을 흔들었다. 김종우에게 공을 받은 산드로가 발제권을 선보이면서 페널티 박스로 진입한 뒤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 손을 지나친 공은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2-0으로 앞선 후반 17분 안양 김정현의 눈스톱 오른발 중거리 슈팅에 실점은 했지만, 남은 시간을 잘 지키면서 승리를 완성했다. 승리를 이끈 광주 이정호 감독은 "양 팀 선수들 모두 사력을 다했고 투혼을 발휘했다. 우리 선수들 뿐 아니라 안양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며 우리의 축구를 펼쳐준 선수들이 대견하다. 또 평일 원정길을 찾아주신 팬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주신 구단 직원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7골을 터뜨리며 20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서 탈출했다. 전남은 안산과의 원정경기에서 올 시즌 K리그 한 경기 최다골(경남 6골)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7-1 승리를 장식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33경기에서 33득점에 그쳤던 전남이지만 시원한 골 잔치를 벌이며 21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렸다. 지난 6월 전남 사령탑에 오른 이장관 감독은 17경기(10무 6패)만에 프로 첫 승을 지휘했다. 박인혁과 발로텔리가 대승을 합작했다. 전반 9분 안산 골키퍼 김선우의 패스 미스로 발로텔리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받았다. 발로텔리가 골키퍼를 피해 패스를 했고, 박인혁이 오른발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전반 20분 박인혁이 멀티골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발로텔리의 도움이 있었다. 전반 33분에는 발로텔리가 직접 골을 넣었다. 전



광주FC의 산드로(오른쪽)가 지난 14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이순민과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남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뺏은 발로텔리가 그대로 골대 앞까지 달려가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1분 박인혁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지만 흘러나온 볼을 잡은 김현욱이 4-0을 만들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남의 득점이 올라갔다. 후반

1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후권이 세컨볼을 잡아 오른 발로 골대 왼쪽을 뚫었다. 후반 3분 다시 한번 상대 골키퍼의 실수가 나왔다. 수비수가 머리로 백패스를 했고, 골키퍼가 공을 잡았다가 놓쳤다. 발로텔리가 이번에도 기회를 놓

치지 않고 달려들어 멀티골을 기록했다. 전남은 후반 26분 장유섭에게 실점했지만, 후반 35분 나온 임찬울의 7번째 골로 안산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충암고 좌완 투수 윤영철 지명

내야수 정해원 등 10명 선발

KIA 타이거즈가 충암고 좌완 윤영철을 낙점했다. KIA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윤영철을 지명하는 등 모두 10명을 선발했다. 189cm, 87kg의 체격을 지닌 윤영철은 최고 145km의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커터 등을 구사한다. 변화구 제구력을 앞세운 윤영철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즉시 전력감으로 꼽힌다. 체계적 지도를 받는다면 구속이 향상돼,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박동원 트레이드 당시 키움에 2라운드(전체 12번) 지명권을 양도한 KIA는 3라운드에 정해원(휘문고·내야수)을 지명했다. 185cm, 87kg의 정해원은 팀에 필요한 우타자 포형 3루수. 입단 후 수비 부분의 발전을 이룬다면 팀 핵심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녔다. 4라운드에서 선발한 김세일(마산용마고·투수)은 189cm의 장신에서 내리꽂는 직구가 위력적이다. 높은 타점에서 시속 150km에 가까운 공을 던지는 '좌완파이어볼러'로 기대를 모은다. 5라운드 광도규(공주고·투수)는 186cm, 90kg

의 체격을 지닌 좌완 투수로 다재선과 구위가 좋다. 시속 140km 중반대의 묵직한 공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유형으로, 불펜에서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6라운드 이송찬(동성고·투수)은 188cm, 87kg의 우완투수로, 올해 꾸준히 구속이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0km 중반대의 구속에 안정적인 제구도 갖췄다. KIA는 또 7라운드 이도현(휘문고·투수), 8라운드 박일훈(안산공고·투수), 9라운드 김도원(서울고·내야수), 10라운드 김재현(송원대·내야수), 11라운드 고윤호(경기고·내야수)도 선택했다. 우완 이도현은 타고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이며, 박일훈은 올해 우완 가운데 직구 RPM(분당 회전수)이 가장 높게 측정되는 구위가 좋은 투수다. 김도원은 올해 고교 유격수 가운데 신체 조건(188cm·78kg)이 가장 좋고, 주력과 파워가 뛰어나 발전 가능성이 크다. 김재현은 운동능력과 주력이 뛰어난 우투좌타 유격수로 내야 유틸리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윤호는 우수투수들이 포진한 서울권 주말리그에서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한 중장거리포 내야수다. KIA 권운민 전력기획팀장은 "자신만의 확실한



충암고 왼손 투수 윤영철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KIA 타이거즈의 지명을 받았다. /연합뉴스

색깔을 지닌 선수들을 지명하고자 했고, 원했던 선수들을 모두 뽑게 돼 만족스럽다"면서 "신체조건이 뛰어나고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투수들과 운동 능

력이 뛰어난 우완투수, 공격력에 강점을 보인 내야수들이 팀 미래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주말 첫 골 쏘나

EPL 레스터시티와 홈 경기



시즌 개막 후 공식전 8경기째 골 침묵을 이어 온 손흥민(30·토트넘)이 다가오는 주말 마수결이 득점포를 터트릴 수 있을까. 손흥민의 소속 팀 토트넘은 18일 오전 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

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레스터시티와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홈 경기에 나선다. 토트넘은 14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에서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에 0-2로 패해 올 시즌 공식전 7경기 연속 무패(EPL 4승 2무-UCL 1승)를 마감하고 첫 패배를 당했다. 분위기를 환기해야 하는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를 꺾고 EPL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려 한다. 현재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3위(승점 14·4승 2무)다. 2위 맨시티와 승점이 14로 같지만, 골 득실에서 7-14로 밀린다. 문제는 손흥민의 '침묵'이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넣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과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이 올 시즌에는 EPL 개막전에서 도움 1골을 기록한 것 외에 공식전 8경기를 치르며 골맛을 보지 못했다. 상대의 강한 견제와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와 함께 변화한 전술 등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의 변함없는 신뢰 속에 직전 스포르팅전까지 모두 선발로 출전했지만, 부진이 길어진다며 안심할 수 없다. 해리 케인, 데얀 클루세브스키와 함께 이적생 히샤르리송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콘테 감독도 최근 공격진 로테이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신에게 볼은 물음표를 지워내려면, 시즌 마수결이 골이 간절하다. 손흥민은 앞서 "한 골을 넣으면 자신감이 돌아올 거로 믿고, 계속해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마수결 레스터 시티는 마침 손흥민이 좋은 기억을 가진 팀이다. 그는 레스터 시티와 공식전에서 14차례 만나 7골 5도움을 올렸다. /연합뉴스

박준표 "KIA 지명 받을 때 기뻐서 울었어요"

프로선수들의 지명 날 기억 가슴 떨리던 순간 잊지 못해

프로의 꿈을 이룬 선수들에게 가슴 떨리던 순간을 떠올리게 한 날이었다. 15일 2023 KBO 신인드래프트가 진행됐다. KIA의 훈련이 진행되던 2시부터 지명 회의가 시작됐지만, 선수들은 중간 중간 라커룸을 오가면서 지명 회의의 지켜보기도 했다. 나성범도 "지명 회의의 보다가 나왔다"면서 수비 훈련을 하러 나가기도 했다. 올해로 5년 차인 좌완 김유신은 "당시 이야기를 들은 게 없었다. 지명받을 줄 몰랐다. 얼떨떨했다. KIA라서 좋았다. 집 가까운 곳이라서 좋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지명받을 줄 몰랐다고 하지만

김유신은 2018라운드 2차 1번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선수다. 또 김유신은 청주 세광고를 졸업했지만 여수 출신으로 화순초에서 야구를 했던 만큼 KIA가 고향팀이기도 하다. 2017 드래프트에서 2차 3라운드에서 호명된 내야수 김석환에게도 지명날은 잊을 수 없다. 김석환은 "지명받고 너무 좋았다. 김씨라고 제일 앞에 앉아있었다"며 "이름이 불리고 나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웃었다. 아예 눈물을 흘린 선수도 있다. 송정동준-진홍중-중앙고를 거쳐 '동강대 프로 1호' 선수가 된 박준표가 그 주인공이다. 사이드암 박준표는 "울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 지명 안 되기도 했고, KIA 와서 좋았다. 이름이 뜨길 기다렸는데 계속 안 됐다. 누나한테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좌완 이준영은 "지명받을 때 운동하고 있었다. 운동하면서 중간중간 휴대전화 보고 있었다"며 "왜 안 나오나 안 나오나 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나와서 좋았다"고 웃었다. 표정으로 화제가 됐던 선수도 있었다. 장충고 유니폼을 입고 2014 드래프트 현장에 앉아있던 박찬호의 이야기다. 박찬호는 당시 '특급 수비'로 주목을 받았던 선수지만 대학 진학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상과 다르게 2차 5라운드에서 KIA의 선택을 받았다. 박찬호는 "솔직히 3-4년을 기대했다. 4년 안에는 뽑힐 줄 알았는데 대학 간다고 소문났다. 이름이 안 나와서 화도 나고 창피해서 옆에 있던 (김)태진이한테 대학 간다고 했었다(웃음)"며 "대학 간 게 신의 한 수다.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행동했는데 나를 선택하고 끝까지 붙잡아준 당시 현실

민 스카우트와 권운민 팀장님에게 감사하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박찬호와 달리 이범호 타격 코치는 기대 이상의 순번을 받으면서 2차 1번 선수로 프로에 입성했다. 대구고를 거쳐 2000년 한화 유니폼을 입은 이범호 코치는 "당시에는 신봉으로 드래프트가 발표되던 때였다. 구단에서 10명을 다 뽑고 학교로 전화가 왔다. 외야에서 러닝하고 있었는데 전화에서 2차 1번으로 뽑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4-5년 정도 생각했다. 1번으로 뽑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프로에 뽑힌 것만으로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뽑은 선수니까 그 부분이 감사했다"고 언급했다. 많은 선수가 가슴 졸이면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던 것과 달리 이의리는 일찍부터 당연한 1차 지명 선수였던 만큼 긴장감은 덜했다. 이의리는 "지명 4일 전엔 유니폼 입고 경기장에 사진 찍으러 왔었다. 지명받은 선수들이 다 잘했으며 좋겠다. 처음 마운드에 올랐을 때 설렘"이라고도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